

외교협력과 군사충돌의 상호성에 관한 고찰*

김형민** · 유진석***

목 차

- I. 서론
- II. 기존 이론과 문헌 탐구
- III. 연구방법 및 결과
-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두 연구 주제인 외교협력, 군사협력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고찰이다. 국가 간 외교협력은 군사충돌의 발발을 억지하는가? 혹은 외교협력의 확대는 오히려 국가 간 군사충돌을 초래하는가? 다양한 외교협력이 군사적 긴장 및 갈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 주제이다. 해당 주제에 관한 국내외 학계에서의 활발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량검증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계량연구는 국가 간 군사동맹의 체결에 한정되어 왔으며, 본 연구는 동맹협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교협력이 국가 간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강조한다.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갈등은 국가 간 외교협력을 저해하는가? 다양한 군사갈등이 국가 간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두 번째 주제이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군사적 갈등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계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국제정치 요인을 군사갈등 요인과 함께 계량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관련 주제의 선행 계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그간 논의가 소홀하였던 외교협력 연구모델과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상호인

* 투고일: 2024. 4. 25. 심사일: 2024. 6. 1. 게재확정일: 2024. 6. 5.

** 명지대학교(서울) 정치외교학과 교수(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교신저자).

과성(simultaneous causation)을 강조한다. 군사분쟁의 다양한 원인을 통제했을 때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 외교협력의 다양한 원인을 통제했을 때 군사분쟁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물을 본 연구는 제공한다. 외교협력, 군사분쟁 두 요인의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국가 간 외교교류는 군사분쟁을 야기하며, 국가 간 군사분쟁은 외교교류를 저해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주제어: 외교협력, 군사충돌, 상호인과성, 군사동맹, 외교교류

I. 서론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 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탈냉전 초기의 평화에 관한 낙관론은 역사의 뒷무대로 퇴장하고 국제관계는 다수의 지역분쟁과 강대국 간의 극심한 전략경쟁의 지속으로 인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대국 본토에 대한 무력 공격,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 러시아 간의 신냉전적 대결양상은 국제정치 연구의 핵심 주제인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치국책의 중요 수단이자 국가간 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외교 및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두 연구 주제인 외교협력, 군사적 충돌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고찰이다. 국가 간 외교협력은 군사충돌의 발발을 억제하는가? 혹은 외교협력의 확대는 오히려 국가 간 군사충돌을 야기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상호 연관된 주제를 다룬다. 첫째로 다양한 외교협력이 군사적 긴장과 갈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해당 주제에 관한 국내외 학계에서의 활발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량검증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계량연구는 국가 간 군사동맹의 체결에 한정되어 왔으며, 본 연구는 동맹협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교협력이 국가 간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강조한다.

두번째로 본 연구는 군사적 긴장 및 갈등은 국가 간 외교협력을 저해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군사적 갈등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계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국제정치 요인을 군사갈등 요인과 함께 계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세번째로, 본 연구는 관련 주제의 선행 계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그간 논의가 소홀하였던 외교협력 연구모델과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상호인과성(simultaneous causation)을 강조한다.

군사분쟁의 다양한 원인을 통제했을 때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외교협력의 다양한 원인을 통제했을 때 군사분쟁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교교류가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선행연구(김형민 2017a, 2017b, 2017c; 김형민·이장욱·이재철 2018; 이장욱·김형민 2019)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주제의 선행 계량연구를 확대·발전하여, 외교협력 연구모델과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다양화, 외교협력 연구변수와 군사분쟁 연구변수 측정방법의 다양화(사용된 자료의 다양화를 포함하여), 외교협력·군사분쟁 상호인과성(simultaneous causation)을 고려한 분석방법의 다양화를 기존 선행연구와의 대표적 차이점으로 강조한다.

II. 기존 이론 및 문헌분석

외교협력과 군사충돌의 상관성에 관한 본 주제의 이론적, 계량적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국가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교교류, 외교협력이 군사협력, 혹은 군사적 긴장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계량분석 연구이다.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가 간 군사외교 협력의 대표사례인 군사동맹(defense pact, non-aggression pacts, ententes) 체결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제3의 위협국가(혹은 위협국가 군)를 대상으로 유사시 군사협력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동맹의 체결은(예,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 양자동맹, 냉전 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다자동맹), (구체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의 경우) 동맹 체결국 간 평시 군사정책의 조율을 전제하며(예, 다양한 한미 군사 연합훈련), 결과적으로 동맹 체결국 간 군사분쟁의 발발은 억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Levi 1981). 다시 말해, 동맹의 외교협력과 군사분쟁·군사협력의 상관관계는 외교협력의 대표적 형태인 동맹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Gibler 2009; Snyder 1997; 윤태룡 2008; 이수형 2008), 구체적으로 군사동맹 형성에 관한 논의(Reiter 1994, 1996; Schweller 1994; Walt 1990; Waltz 1979), 군사동맹 유지·관리에 관한 논의(Olson & Zeckhauser 1966; Snyder 1990, 1991, 1997), 군사동맹이 국가 간 군사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의 핵심은 군사동맹과 군사협력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인데, 동맹의 협력강화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군사동맹은(동맹의 대표적 형태인 방위조약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침략 대상국을 위하여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대한 믿음과, 발생 전 군사적 연합의 적극성을 보여줌으로 서로 간 군사침략을 억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다(Levi 1981).

더불어, 동맹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오인을 감소시켜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Singer, Bremer & Stuckey 1972). 동맹은 현상유지, 국가간 국력 균형의 유지, 그리고 국가간 협력 증대에 기여한다.

하지만, 군사동맹의 체결을 넘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계량연구가 국내, 국외 학계에서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자유주의의 한 갈래인 사회학 자유주의(sociological liberalism)와 (관련하여 자유주의·안보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근욱 2009),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주장한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 논의는 대표적 예외이다. 사회학 자유주의의 주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외교관의 이동(외교교류)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적교류 (예, 학생·연구자, 기업인, 예술인, 관광객 등)의 확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함께라는 (혹은 함께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다고 논의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통합의 과정에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넘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인적이동의 확대가 유럽 정체성의 형성과 유럽 국가 간 협력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사회학 자유주의는 그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 간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칸트의 “평화 삼각축 (triangulating peace),” 혹은 자유평화론(liberal peace theory) 논의 그 주장의 한 갈래로 다양한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에의 적극적 참여, 국제기구에서의 외교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유인하는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예, 국가 간 협력을 보상하는, 국제연합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로 대표되는 비협력에 대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ant [1795] 1991; Archibugi 1992; Bohman & Lutz-Bachmann 1997; Senghaas 2007; Terminski 2010). 이러한 논의는 자유주의(liberalism)의 한 갈래인 자유 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의 이론적 주장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 (Keohane 1984, 1988, 1993; Keohane & Martin 1995; Martin & Simmons 1998; Simmons & Martin 2002). 관련하여, 보에머·가츠키·노드스툼(Boehmer, Gartzke, & Nordstorm 2004), 돈노·메쯔거·러셋(Donno, Metzger, & Russett 2014), 도루센·워드(Dorussen & Ward 2008), 하프너-버튼-몽고메리(Hafner-Burton & Montgomery 2006), 한센·미첼·네메스(Hansen, Mitchell, & Nemeth 2008), 오널·러셋·버바움(Oneal, Russett, & Berbaum 2003), 피비하우스·러셋(Pevehouse & Russett 2006), 샤논(Shannon 2009), 샤논·모레이·보움케(Shannon, Morey, & Boehmke 2010)는 국제기구에서의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을 억제한다는 이론적, 계량적 연구를 제공한다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을 참조, 김형민 2017a; 김형민·이장욱·이재철 2018; 이장욱·김형민 2019). 예를 들어, 피비하우스·러셋(Pevehouse & Russett 2006)은 민주 국제기구는 군사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교환을 보조하고, 분쟁해결을 포함한 평화적 외교정책을 위한 사회화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계량분석의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다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을 참조, 이종국 2003; 최위정 2006, 2007, 2014).

비어스(Bearce 2003), 비어스·오모리(Bearce & Omori 2005), 비어즐리·슈미트(Beardsley & Schmidt 2012), 딜·라이프스나이더·헨셀(Diehl, Reifschneider, & Helsel 1996)을 비롯하여, 현 국제기구의 대표사례인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의 국가 간 외교협력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을 포괄하는 협력의 상관성에 관하여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ism)과 신기능주의 이론(neo-functionalism)의 주장도 본 연구 주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협력과 외교협력의 상관성에 관하여, 군사협력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이론연구, 계량연구도 존재한다 (Barnett & Levy 1991; Cranmer, Desmarais, & Kirkland 2012; Crescenzi, Kathman, Kleinberg, & Wood 2012; Gaubatz 1996; Lai & Reiter 2000; Walt 1990).

III.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가설과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외교협력이 군사충돌의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1>과, 국가 간 군사충돌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2>를, 외교협력·군사충돌 상호인과성(외교협력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 군사충돌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교교류가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선행연구(김형민 2017a, 2017b, 2017c; 김형민·이장욱·이재철 2018; 김형민·유진석 2024, 이장욱·김형민 2019)에 기반하고 있다.¹⁾

<가설 1> 국가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외교적 협력은 (외교협력 국가 간) 군사적 긴장·갈등을 억제한다.

<가설 2> 국가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갈등은 (군사긴장·갈등 국가 간) 외교적 협력을 저해한다.

1) 본 연구는 관련 주제의 선행 계량연구를 확대·발전하여, 외교협력 연구모델과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다양화, 외교협력 연구변수와 군사분쟁 연구변수 측정방법의 다양화 (사용된 자료의 다양화를 포함하여), 외교협력·군사분쟁 상호인과성(simultaneous causation)을 고려한 분석방법의 다양화를 기존 선행연구와의 대표적 차이점으로 강조한다.

외교협력이 군사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과 군사협력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은, 앞서 <기존 이론 및 문헌> 파트에서 자세히 논하였던 관련 주제의 다양한 국내·국의 이론연구, 계량연구에 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군사분쟁 모델: 가설 1 검증> $Y_{i,t} = \beta_0 + \beta_1 * X_{1,t} + \beta_2 * X_{2,t} + \beta_3 * X_{3,t} + \beta_4 * X_{4,t} + \beta_5 * X_{5,t} + \beta_6 * X_{6,t} + \beta_7 * X_{7,t} + \beta_8 * X_{8,t} + \beta_9 * X_{9,t} + \beta_{10} * X_{10,t} + \beta_{11} * X_{11,t} + e$

Y, 군사충돌의 발발(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X1, 외교협력(diplomatic exchanges); X2, 민주화 수준(level of democracy); X3, 경제적 상호의존(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X4, 국력의 균형(balance of power); X5, X6,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 distance); X7, 강대국 여부(major power status); X8, X9, X10, X11, 과거 분쟁 경험(peace year, spline1, spline2, spline3);

<외교협력 모델: 가설 2 검증> $Y_{i,t} = \beta_0 + \beta_1 * X_{1,t} + \beta_2 * X_{2,t} + \beta_3 * X_{3,t} + \beta_4 * X_{4,t} + \beta_5 * X_{5,t} + \beta_6 * X_{6,t} + \beta_7 * X_{7,t} + \beta_8 * X_{8,t} + \beta_9 * X_{9,t} + e$

Y, 외교협력(diplomatic exchanges); X1, 군사충돌의 발발(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X2, 민주주의 공유(joint democracy); X3, X4,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 distance); X5, 군사적 동맹(shared alliance ties); X6, 강대국 여부(major power status); X7, 공동의 적(joint enemy); X8, 숙적관계(rivalry); X9, 문화 유사성(cultural similarities)

2. 분석자료, 분석변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두 연구모델(군사분쟁 모델, 외교협력 모델)에서 사용한 분석변수와 이를 위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²⁾ 먼저, 군사분쟁 모델의 종속변수이자 외교협력 모델의 독립변수인 군사충돌의 발발(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변수는 국가 간 다양한 군사적 충돌에 관한 COW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Version 5.0, 1816–2014 (Ghosn, Palmer, & Bremer 2004; Jones, Bremer, & Singer 1996; Maoz, Johnson, Kaplan, Ogunkoya, & Shreve 2018; Palmer, D’Orazio, Kenwick, & Lane 2015; Palmer, McManus, D’Orazio, Kenwick, Karstens, Bloch, Dietrich, Kahn, Ritter, & Soules 2020),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ICB) Version 12 (Brecher & Wilkenfeld 2000), COW War Data, 1816 – 2007 Version 4.0, 1816–2007 (Sarkees, Reid, & Wayman 201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강건성

2) 분석에서 사용된 분석자료, 분석변수 및 그 측정방법의 방대함과 지면의 제약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 분석변수 및 그 측정방법을 간략히 소개함을 밝힌다.

(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국가 간 군사충돌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가 간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s, fatal militarized disputes, use of force militarized disputes), 군사위기(international crisis), 전쟁(international war)의 자료가 그것이다. 군사충돌 변수는 국가 간 군사충돌이 발발하였을 경우 1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하는 이분화 변수로 측정하였다.

군사분쟁 분석모델의 통제변수인 민주화 수준(level of democracy) 변수는 Polity V, 1800-2018의 자료를 사용하여 (Marshall & Gurr 2020), 국가의 민주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경제적 상호의존(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변수는 COW International Trade Version 4.0, 1870-2014 (Barbieri & Keshk 2016; Barbieri, Keshk, & Pollins 2009), 오닐과 러셋의 자료를 사용하여 (Hegre, Oneal, & Russett 2010; Oneal & Russett 1997; Oneal, Russett, & Berbaum 2003; Russett & Oneal 2001) 국가 간 무역 분야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를 측정하였다.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변수는 COW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ersion 6.0, 1816-2016 (Singer, Bremer, & Stuckey 1972)을 사용하여 국가 간 경제(economic), 군사(military), 인구(population) 영역에서의 (구체적으로 군사인력, 군사비 지출, 에너지 소비, 철강생산량, 도시인구 및 전체인구의 세부 지표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국력균형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 distance) 변수는 Direct Contiguity Version 3.2, 1816-2016 (Stinnett, Tir, Schafer, Diehl, & Gochman 2002)와 Minimum Distance Data Version 0.97, Distance Between Capital Cities (Gleditsch and Ward 2001)을 사용하여, 국가 간 국경의 공유 여부와 지리적인 거리를 측정하였다. 강대국 여부(major power status) 변수는 COW State System Membership Version 2016, 1816-2016 (Correlates of War Project 2017)을 사용하여, 강대국 존재 여부를 측정하였다. 과거 분쟁경험(peace year, spline1, spline2, spline3) 변수는 국가 간 과거 군사분쟁 경험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벡-카츠-터커(Beck, Katz, and Tucker 1998)의 이론논의를 중심으로 군사분쟁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외교협력 모델의 종속변수이자 군사분쟁 모델의 독립변수인 외교협력(diplomatic exchanges) 변수는 COW Diplomatic Exchange Version 2006.1, 1817-2005 (Bayer 2006)을 사용하여 국가 간 공식적 외교교류(ambassador, chargé d'affaires, minister)가 존재하였을 경우 1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하는 이분화 변수로 측정하였다. 외교협력 모델의 통제변수인 민주주의 공유(joint democracy) 변수는 Polity V, 1800-2018의 자료를 사용하여 (Marshall & Gurr 2020), 두 국가 모두 민주주의일 경우 1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하는 변수로 측정하였다. 군사적 동맹(shared alliance ties) 변수는 COW Formal Alliance Version 4.1, 1816-2012 (Gibler 2009; Singer & Small 1966)을 사용하여, 두 국가가 군사동맹(defense pact, non-aggression pacts, or ententes)을 체결하였으면 1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하는 이분화 변수로 측정하였다. 지리적 근접성(contiguity, distance), 강대국 여부(major power status) 변수

는 군사분쟁 모델에서 사용한 자료와 변수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공동의 적(joint enemy) 변수는 Conflict Interaction Level Version 1.1 (Crescenzi & Enterline 2001; Crescenzi, Enterline, & Long 2008)을 사용하여, 두 국가의 공동 적 존재 여부를 과거 10년간 군사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1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 0으로 하는 측정방법을 차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대표적인 차이점의 하나는, 연구모델들의 다양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와 측정방법의 다양화이다. 이는 특정 데이터나, 특정 변수 측정방법 (그리고 특정 데이터, 특정 변수 측정방법을 사용한 연구 분석모델)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수 간 상관관계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외교협력 모델의 통제변수인 숙적관계(rivalry) 변수와 문화 유사성(cultural similarities) 변수를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숙적관계 변수는 베네트(Bennett 1997a, 1997b), 콜라레시·래슬러·톰슨(Colaresi, Rasler, & Thompson 2007), 달·거츠(Diehl & Goertz 2000), 휴이트(Hewitt 2005), 거츠·달·발라스(Goertz, Diehl, & Balas 2016), 클라인·거츠·딜(Klein, Goertz, & Diehl 2006)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 간 숙적관계가 존재하였으면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한 이분화 변수로 측정하였다 (숙적관계 변수, 문화 유사성 변수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와 변수 측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다음을 참조, 김형민 2017b, 2017c). 문화 유사성 변수는 문명권 분류에 관한 치오자(Chiozza 2002), 폭스(Fox 2001, 2002), 헨더슨(Henderson 1998), 헨더슨·터커(Henderson & Tucker 2001), 헌팅턴(Huntington 1996), 러셋·오닐·콕스(Russett, Oneal, & Cox 2000)의 자료를, 종교유사성에 관한 COW World Religion Data Version 1.1 (Maoz & Henderson 2013), CEPII(Research and Expertise on the World Economy) GeoDist (Head, Mayer, & Ries 2010; Melitz & Toubal 2014)의 자료를, 인종 유사성에 관한 헨더슨(Henderson 1997), 라이·라이터(Lai & Reiter 2000)의 자료를, 언어 유사성에 관한 CEPII(Research and Expertise on the World Economy) GeoDist (Head, Mayer, & Ries 2010; Melitz & Toubal 2014), 헤이브만(Haveman 2017)의 자료를 사용하여, 두 국가가 같은 문명권에 속해 있으면, 혹은 문화의 다양한 요소인 종교, 인종, 언어의 국가 간 유사성이 존재할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하는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종교유사성, 인종유사성, 언어유사성 변수를 위하여 추가로 CIA World Factbook(various years) 자료를 검토하였다 (Thompson 2001; Maoz & Henderson 2013).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또 다른 대표적 차이점은, 연구분석 방법의 다양화이다. 본 연구는 외교협력,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수 간 일방향 인과관계(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 군사분쟁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 one-way causation)를 분석하는 선행 계량연구의 분석방법과 달리, 두 변수 간 상호인과성(simultaneity)을 고려한(통제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instrumental variables, limited-information two-stage probit

least squares estimation, Amemiya 1978; Heckman 1978; Maddala 1983). 이 분석방법은 두 단계의 분석과정(two-step estimation)을 활용하는데(Gujarati & Porter 2009), 먼저 내생 독립변수(endogenous explanatory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군사분쟁 발발, 외교협력 존재)를 두 모형에 포함된 모든 기타 독립변수(predetermined variables)로 추정하여 내생 독립변수와 각 모형의 확률변이(stochastic disturbances)와의 개연적 상관성(likely correlation)을 제거하는 첫 단계이다. 다음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된 내생 독립변수 추정값과 개별 모형의 기타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군사분쟁과 외교협력에 관한 프로빗 분석을 시행하는 과정이다. 이는 군사분쟁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지 않은 외교협력의 군사분쟁에의 일방향 영향 분석결과와 통계학적 문제점, 마찬가지로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지 않은 군사분쟁의 외교협력에의 일방향 영향 분석결과와 통계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다. 구체적으로, 그린(Greene 2011)과 구자라타·포터(Gujarati & Porter 2009)는 분석모델 간 상호인과성(two-way causation)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모델 환경에서, 이를 방법론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변수 간 상호인과성을 무시하고), 각 연구모형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경우 연구모델 분석 변수 간 영향력에 관한 잘못된 결론(erroneous conclusions)이 분석의 결과 도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계량경제학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교협력과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변수 간 상호인과관계 분석방법을 사용한 국제분쟁 연구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 Hegre, Oneal, & Russett 2010; Keshk, Pollins, & Reuveny 2004; Keshk, Reuveny, & Pollins 2010; Kim & Rousseau 2005, 2013).

3. 분석결과 및 해석

외교협력과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기간(1816-2001년)에서 dyadic 데이터를 사용한 dyadic 데이터 분석의 연구결과,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인 <표 13>-<표 24>, <부록 15>과, 군사분쟁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
- 3) 외교협력 연구모델의 숙적 변수를 위하여 클라인·거츠·딜(Klein, Goertz, & Diehl 2006)의 데이터와 추정방법, 문화유사성 변수를 위하여 갤로웨이(Galloway 2008)의 데이터와 추정방법을 사용한 모델 1-1에서 모델 1-5는, 구체적으로 모델 1-1은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s), 모델 1-2는 심각한 군사분쟁(fatal militarized disputes), 모델 1-3은 무력사용 군사분쟁(use of force militarized disputes), 모델 1-4는 군사위기(international crisis), 모델 1-5는 전쟁(international war) 군사충돌 종속변수를 사용한 군사분쟁 모델이다.
 - 4) 외교협력 연구모델의 숙적 변수를 위하여 톰슨(Thompson 2001)의 데이터와 추정방법, 문화유사성 변수를 위하여 마오즈·헨더슨(Maoz & Henderson 2013)의 데이터와 추정방법을 사용한 모델 2-1에서 모델 2-5는, 구체적으로 모델 2-1은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s), 모델 2-2는 심각한 군사분쟁

석결과인 <표 36>에서 살펴볼 수 있다.⁷⁾ 먼저 본 연구 군사분쟁 모델의 분석 결과는 국가 간 외교협력은 군사분쟁의 발발을 억제한다는 <가설 1>이 검증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fatal militarized disputes, international war는 예외적으로). 선행연구의 이론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간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서는, 외교협력이 국가 간 군사적 긴장·갈등을 억제한다는 논의 (예, 동맹의 군사협력이 군사분쟁을 억제한다는 논의)와 함께, 국가 간 외교분야에서의 긴밀한 접촉이 국가 간 군사갈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논의로 대별되고 있다 (예, 경제 외교관계 확대가 군사분쟁을 야기한다는 현실주의 논의, Waltz 1979; Gaddis 1986). 본 연구의 분석은, 국가 간 외교협력의 확대는 다양한 종류의 군사충돌 (군사분쟁, 군사위기로 대표되는)을 오히려 야기한다는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후자의 이론적 논의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자유주의 논의와는 달리, (군사동맹을 넘어서는) 국가 간 외교협력의 확대는 결코 군사협력을 유인할 수 없다는 분석의 결과를 본 연구는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외교협력-군사협력 관계는,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논의보다는,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war of all against all),” Hobbes 1994), 생존을 위하여 서로 항시적으로 견제·갈등한다는(power struggle) 다양한 현실주의 (예,

(fatal militarized disputes), 모델 2-3은 무력사용 군사분쟁(use of force militarized disputes), 모델 2-4는 군사위기(international crisis), 모델 2-5는 전쟁(international war) 군사충돌 종속변수를 사용한 군사분쟁 모델이다.

- 5) 외교협력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강건성(robustness) 분석인 모델 1에서 모델 42는 (군사분쟁 모델에서의 외교협력 변수의 인과성 분석결과), 외교협력 모델의 속적 변수와 문화유사성 변수를 다양화하여 분석한 연구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모델 1에서 모델 7은 클라인·거츠·딜(Klein, Goertz, & Diehl 2006) 속적 데이터와 측정방법 (문화유사성 데이터와 측정방법으로, 모델 1은 러셋·오널·콕스(Russett, Oneal, & Cox 2000) 문명권, 모델 2는 헨더슨·터커(Henderson & Tucker 2001), 모델 3은 겔로웨이(Galloway 2008)) 문명권, 모델 4는 치오자(Chiozza 2002), 모델 5는 라이·라이터(Lai & Reiter 2000) 종교유사성, 모델 6은 라이·라이터(Lai & Reiter 2000) 인종유사성, 모델 7은 라이·라이터(Lai & Reiter 2000) 언어유사성, 모델 8에서 모델 14는 거츠·딜·발라스(Goertz, Diehl, & Balas 2016)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15에서 모델 21은 톰슨(Thompson 2001)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22에서 모델 28과 모델 29에서 모델 35는 베네트(Bennett 1997a, 1997b) 데이터와 측정방법, 모델 36에서 모델 42는 콜라레시·래스러·톰슨(Colareasi, Rasler, & Thompson 2007)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활용한 모델이다.
- 6) 외교협력 연구모델의 속적 변수를 위하여 클라인·거츠·딜(Klein, Goertz, & Diehl 2006)의 데이터와 측정방법, 문화유사성 변수를 위하여 겔로웨이(Galloway 2008), 러셋·오널·콕스(Russett, Oneal, & Cox 2000)의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모델 3-1에서 모델 3-6은, 구체적으로, 모델 3-1, 3-4는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s), 모델 3-2, 3-5는 무력사용 군사분쟁(use of force militarized disputes), 모델 3-3, 3-6은 군사위기(international crisis) 군사충돌 독립변수를 사용한 외교협력 모델이다.
- 7)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군사분쟁 연구모델, 외교협력 연구모델의 다양한 변수를 위한 데이터의 한정성에 바탕을 둔다. 각 변수를 위한 데이터의 추가 수집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지만,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계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예, 분석방법, 분석자료, 변수측정 방법, 연구모델의 다양화 등). 추가 분석의 결과는 대체로 본 연구의 주 연구분석(main analysis)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록 1> 참조).

고전 현실주의, classical realism)의 논의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군사분쟁 연구모델의 다른 분석결과, 관련 주제의 선행 계량연구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⁸⁾ 군사분쟁의 다양한 원인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적 주장에 부합되게, 세력불균형이론 주장인 국가 간 국력의 균형이 군사분쟁을 확대하는 분석결과, 강대국 간 군사분쟁이 빈번한 분석결과를 본 연구는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분쟁에 관한 자유주의 이론적 주장에 부합되게, 민주주의 국가 간 군사분쟁 억지,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 간 군사분쟁 억지를 강조하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상업평화론(commercial peace theory) 논의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증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간 군사분쟁의 빈번한 발발, 과거 군사적 긴장갈등 경험이 이후 군사분쟁에 영향을 준다는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 벡·카츠·터커(Beck, Katz, & Tucker 1998)의 이론적인 논의에 대하여도, 본 연구는 그 분석의 결과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외교협력 모델 분석 결과, 국가 간 군사분쟁의 발발은 외교협력을 저해한다는 <가설 2>가 검증됨을 볼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간 군사분쟁의 발발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저해하며, 일반적으로 군사충돌(군사분쟁, 군사위기)은 국가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단절을 야기하는 역사적 증거가 적지 않다(예, 군사분쟁 국가 간 경제 외교관계의 단절). 또한, 과거 군사분쟁을 경험한 국가군은 역사에 대한 학습화 과정을 통하여(learning theory, Reiter 1994, 1996), 공식적 외교관계를 쉽게 복원하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계량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국가 간 군사충돌(군사분쟁, 군사위기)은 이후의 외교협력을 저해한다는 분석의 결과물을 본 연구는 제공하고 있다. 외교협력 연구모델의 다른 분석결과, 관련 주제의 선행 이론연구, 계량연구의 논의와 결과에 부합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협력에 관한 현실주의의 논의인, 군사동맹 체결 국가 간 외교협력의 확대, 강대국과 비강대국 간 외교협력의 경향성, 정치지리학 논의인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 간 외교협력의 확대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의 결과가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되었다.

8)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핵심 주제인 외교협력과 군사분쟁 변수 간 결과에 중심하고 있음을 밝힌다.

<표 1> 외교협력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I: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종속변수: 군사충돌의 발발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모델1-1	모델1-2	모델1-3	모델1-4	모델1-5
독립변수					
외교협력 (Diplomatic Exchanges)	2.2019*** (0.0205)	0.0171 (0.5406)	1.9739*** (0.0460)	0.2675 (0.3306)	-1.5005** (0.5639)
민주화 수준 (Level of Democracy Lower)	-0.01502*** (0.0012)	-0.0170** (0.0063)	-0.0185*** (0.0018)	-0.0398*** (0.0046)	-0.0145 (0.0130)
경제적 상호의존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12.1063*** (1.4140)	-22.3875** (9.3148)	-14.0829*** (2.2324)	-14.2796* (6.8252)	3.1759 (9.7919)
국력의 균형 (Balance of Power)	-0.0092** (0.0052)	-.06453*** (0.0244)	-0.0106+ (0.0076)	-0.0871*** (0.0155)	-0.0531 (0.0420)
지리적 근접성 I (Contiguity)	0.0908*** (0.0246)	1.1798*** (0.0975)	0.3217*** (0.0400)	0.8143*** (0.0762)	0.7348*** (0.1669)
지리적 근접성 II (Distance)	0.2385*** (0.0089)	-0.1828** (0.0769)	0.1478*** (0.0156)	-0.1553** (0.0532)	-0.2690*** (0.0790)
강대국 여부 (Major Power Status)	-0.6460*** (0.0238)	0.4504* (0.2012)	-0.4090*** (0.0422)	0.7048*** (0.1567)	1.1065*** (0.1442)
과거 분쟁경험 I (Peace Year)	-0.1040*** (0.0041)	-0.0966*** (0.0252)	-0.1130*** (0.0060)	-0.1563*** (0.0159)	0.0422 (0.0580)
과거 분쟁경험 II (Spline 1)	-.0004*** (0.0000)	-0.0003** (.0001)	-0.0004*** (0.0000)	-0.0008*** (0.0001)	0.0001 (0.0003)
과거 분쟁경험 III (Spline 2)	0.0002***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4*** (0.0000)	-0.0000 (0.0001)
과거 분쟁경험 IV (Spline 3)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상수	-3.3606*** (0.0648)	-1.7706** (0.6420)	-3.0510*** (0.0981)	-1.4633*** (0.3856)	-1.2901 (1.3385)
N	403,794	395,139	395,139	390,490	395,13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a two-tailed test, +p<=.10, *p<=.05, **p<=.01, ***p<=.001.

<표 2> 외교협력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II: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종속변수: 군사충돌의 발발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모델2-1	모델2-2	모델2-3	모델2-4	모델2-5
독립변수					
외교협력 (Diplomatic Exchanges)	1.0194*** (0.1729)	-0.7332* (0.3734)	0.7115*** (0.2122)	0.4851* (0.2470)	-1.4316* (0.6698)
민주화 수준 (Level of Democracy Lower)	-0.00149*** (0.0026)	-0.0085 (0.0066)	-0.0136*** (0.0032)	-0.0339*** (0.0048)	-0.0068 (0.0158)
경제적 상호의존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14.1962*** (3.0136)	-27.8975* (14.3580)	-13.3445*** (3.8831)	-14.8696* (6.6272)	5.6329 (16.9917)
국력의 균형 (Balance of Power)	-0.0483*** (0.0105)	-0.0592* (0.0261)	-0.0308** (0.0123)	-0.0788*** (0.0158)	-0.0664 (0.0609)
지리적 근접성 I (Contiguity)	0.8817*** (0.0703)	1.1610*** (0.0912)	0.9303*** (0.0692)	0.7662*** (0.0728)	0.6356*** (0.2046)
지리적 근접성 II (Distance)	-0.0558* (0.0332)	-0.3036*** (0.0490)	-0.1163*** (0.0379)	-0.1285** (0.0441)	-0.3277*** (0.0984)
강대국 여부 (Major Power Status)	0.3215*** (0.1020)	0.7172*** (0.1487)	0.3481*** (0.1096)	0.5877*** (0.1304)	1.2217*** (0.2225)
과거 분쟁경험 I (Peace Year)	-0.1475*** (0.0077)	-0.0550* (0.0244)	-0.1166*** (0.0101)	-0.1480*** (0.0141)	0.5072 (0.3967)
과거 분쟁경험 II (Spline 1)	-0.0006*** (0.0000)	-0.0001+ (0.0001)	-0.0004*** (0.0000)	-0.0007*** (0.0001)	0.0021+ (0.0015)
과거 분쟁경험 III (Spline 2)	0.0003***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3*** (0.0000)	-0.001+ (0.0006)
과거 분쟁경험 IV (Spline 3)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상수	-1.9856*** (0.2204)	-0.6715 (0.5261)	-1.7300*** (0.2665)	-1.6469*** (0.3068)	-4.5658 (3.8307)
N	385,825	376,297	376,297	377,169	376,29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a two-tailed test, +p<=.10, *p<=.05, **p<=.01, ***p<=.001.

<표 3> 군사충돌이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종속변수 외교협력 (Diplomatic Exchanges)	모델3-1	모델3-2	모델3-3	모델3-4	모델3-5	모델3-6
독립변수						
군사충돌의 발발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	-22.5228*** (0.0355)	-25.6799*** (0.0326)	-34.0569*** (0.0409)	-22.3631*** (0.0393)	-25.4241*** (0.0323)	-33.6403*** (0.0406)
민주주의 공유 (Joint Democracy)	0.0008 (0.0057)	0.0020 (0.0058)	-0.0022 (0.0058)	0.0024 (0.0059)	0.0052 (0.0060)	0.0010 (0.0061)
지리적 근접성 I (Contiguity)	0.2860*** (0.0093)	0.3426*** (0.0093)	0.152***1 (0.0096)	0.2827*** (0.0094)	0.3466*** (0.0094)	0.1527*** (0.0097)
지리적 근접성 II (Distance)	-0.0117*** (0.0027)	-0.0242*** (0.0027)	-0.0215*** (0.0027)	-0.0123*** (0.0028)	-0.0261*** (0.0028)	-0.0235*** (0.0028)
군사적 동맹 (Shared Alliance Ties)	0.0017 (0.0071)	0.0011 (0.0072)	0.0496*** (0.0073)	-0.0002 (0.0071)	-0.0025 (0.0072)	0.04911*** (0.0073)
강대국 여부 (Major Power Status)	0.0291*** (0.0075)	0.0478*** (0.0074)	0.0872*** (0.0076)	0.0244*** (0.0076)	0.0468*** (0.0075)	0.0905*** (0.0077)
공통의 적 (Joint Enemy)	0.0161** (0.0058)	0.0150** (0.0058)	0.0381*** (0.0059)	0.0165** (0.0059)	0.0169** (0.0060)	0.0408*** (0.0061)
숙적관계 (Rivalry)	5.8447*** (0.0228)	3.4885*** (0.0219)	2.3890*** (0.0208)	5.8134*** (0.0233)	3.4616*** (0.0221)	2.3627*** (0.0210)
문화 유사성 (Cultural Similarities)	0.0155*** (0.0047)	0.0091* (0.0048)	0.0091* (0.0048)	0.0157*** (0.0048)	0.0098* (0.0048)	0.0089* (0.0049)
상수	0.0868*** (0.0220)	0.1880* (0.0222)	0.1508*** (0.0224)	0.0931*** (0.0228)	0.2032*** (0.0228)	0.1672*** (0.0231)
N	403,794	395,139	390,490	390,679	383,522	378,86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a two-tailed test, +p<=.10, *p<=.05, **p<=.01, ***p<=.001.

본 연구는 국가 간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계량연구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공동의 적을 공유하는 국가 간 외교협력의 확대 경향,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유사성(문명권, 언어, 종교, 인종유사성)이 국가 간 외교협력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또한 제공한다. 먼저, 공동의 적 변수가 외교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본 연구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라는 논의, 다시 말해 공동의 적을 공유한 국가는 안보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의를 계량적으로 입증한다(유사한 주장으로, 한미·미일 동맹관계에서의 한일관계에 관한 안보 위협·외교협력 상관관계 논의로 다음을 참조, Cha 1996, 1999, 2000). 마지막으로, 국가 간 문화유사성이 외교협력을 확대한다는, 다시 말해 문화가 유사한 국가 간 협력 확대의 경향성에 관한 논의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숙적관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변수 측정방법(문명권, 인종, 언어, 종교유사성; Chiozza 2002; CIA World Factbook, various years; Fox 2001, 2002; Haveman 2017; Head, Mayer, & Ries 2010; Henderson 1997, 1998; Henderson & Tucker 2001; Huntington 1996; Lai & Reiter 2000; Maoz & Henderson 2013; Melitz & Toubal 2014; Russett, Oneal, & Cox 2000)을 다양화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문화의 유사성을 가진 두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군과 비교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외교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연구 주제이자 최근 다수의 지역분쟁과 강대국기는 치열한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을 1816~2001년까지의 경험적 데이터를 사용한 외교적 협력과 군사분쟁 간 상관관계의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외교적 협력과 군사분쟁에 관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데이터와 측정방법을 다양화하고 두 핵심 변수 간의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두 가지 모델인 군사분쟁 모델과 외교협력 모델에 사용된 다양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변수 측정을 다양화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데이터나 특정 변수 측정방법(그리고 특정 데이터, 특정 변수 측정방법을 사용한 연구 분석모델)이 본 연구 분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교협력과 군사분쟁의 인과성을 고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수 간 일방향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선행 계량연구의 분석방법과 달리, 두 변수 간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두 변수간 상호인과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방법론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개

별적인 분석을 할 경우 외교협력과 군사분쟁 모델의 분석변수 간 영향력에 대해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위험성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탐구한 두 가지의 모델 즉 군사분쟁 모델과 외교협력 모델의 분석결과 첫번째 모델인 군사분쟁 모델에서는 외교협력이 군사분쟁의 발발을 억제한다는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외교협력이 국가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주장 일부와 부합되는 부분이다. 한편 자유주의 계열 이론에서 도출된 변수인 민주주의 변수와 경제적 상호의존은 군사충돌의 발발 억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모델인 외교협력 모델에서는 군사분쟁이 외교협력을 저해한다는 두번째 가설이 검증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large-N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서 분석결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현재의 국제질서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군사충돌은 외교협력을 저해하고, 외교협력은 군사충돌 가능성을 줄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자유주의 계열 변수인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분쟁 발발 억제의 순기능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경쟁에서 국제협력은 미국주도 하의 좀 더 포괄적인 세계 하위 질서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포함된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질서에 기반한 비자유주의적 하위 질서 간 양극화의 심화를 예견하고 있다. 미국 중심질서 하에 속한 주요 국가들은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며 그들만의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나, 이 질서 바깥에 존재하게 될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 또는 디커플링을 통해 점차로 미국 중심의 질서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적 협력은 주요 강대국 간의 갈등 억제와 감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를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외교적 협력은 공멸의 위험을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낮은 수준의 협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했던 1994년의 제네바합의, 2차 북핵위기 이후의 6자회담, 2017년도 한반도 위기 상황 이후에 극적으로 전개된 미국-북한-한국의 정상회담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외교적 협력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정부가 없는 국제체제 하에서 개별국가의 생존은 자초의 원칙 하에 지켜지며 국제정치의 결과물은 대개 힘(또는 능력)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형민. (2017a). “문화요인이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명충돌론의 주장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5(2): 113-146.
- _____. (2017b).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9(1): 113-146.
- _____. (2017c). “숙적관계가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2): 123-152.
- 김형민·이장욱·이재철. (2018). “외교교류가 군사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아세아』, 25(2): 41-71.
- 김형민·유진석. (2024). “문화유사성과 군사충돌의 상호성에 관한 고찰”, 미출판 논문.
- 윤태룡. (2008). “동맹이론(Alliance Theory)의 한국적 수용”, 이정화·우승지(공편), 『현대국제정치 이론과 한국적 수용』, 219-251, 서울: 법문사.
- 이근욱. (2009). “자유주의 이론과 안보: 모순된 조합인가 새로운 가능성인가?”, 『국제정치논총』, 49(5): 33-53.
- 이수형. (2008).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51(2): 111-132.
- 이장욱·김형민. (2019). “국제연합 표결의 국제정치학: 군사분쟁의 원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38.
- 이종국. (2003). “전후 일본의 국제기구외교-유엔(UN)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9: 184-207.
- 최위정. (2006). “신자유주의 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2(2): 97-134.
- _____. (2007). “현실주의 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3(2): 175-202.
- _____. (2014). “마르크스주의 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3): 236-264.

<국외문헌>

- Amemiya, Takeshi. (1978). “The Estimation of a Simultaneous Equation Generalized Probit Model”, *Econometrics*, 46(5): 1193-1205.
- Archibugi, Daniele. (1992). “Model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Perpetual Peace Project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8(4): 295-317.

- Barbieri, Katherine, and Keshk, Omar M. G. (2016). "Correlates of War Project Trade Data Set Codebook, Version 4.0", Online: <https://correlatesofwar.org/> (검색일: 2023.12.01).
- Barbieri, Katherine, Keshk, Omar M. G., and Pollins, Brian. (2009). "TRADING DATA: Evaluating our Assumptions and Coding Rul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6(5): 471–491.
- Barnett, Michael N., and Levy, Jack S. (1991). "Domestic Sources of Alliances and Alignments: The Case of Egypt, 1962–73",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3): 369–395.
- Bayer, Reşat. (2006). "Diplomatic Exchange Data set, v2006.1", Online: <https://correlatesofwar.org/> (검색일: 2023.12.01).
- Bearce, David H. (2003). "Grasping the Commercial Institutional Pe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3): 347–370.
- Bearce, David H., and Omori, Sawa. (2005). "How Do Commercial Institutions Promote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42(6): 659–678.
- Beardsley, Kyle, and Schmidt, Holger. (2012). "Following the Flag or Following the Charter?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UN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Crises, 1945–200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6(1): 33–49.
- Beck, Nathaniel, Katz, Jonathan N., and Tucker, Richard. (1998). "Taking Time Seriously: Time–Series–Cross–Sectional Analysis with a Binary Dependent Variab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4): 1260–1288.
- Bennett, D. Scott. (1997a). "Democracy, Regime Change, and Rivalry Termin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22(4): 369–397.
- _____. (1997b). "Measuring Rivalry Termination, 1816–199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2): 227–254.
- Boehmer, Charles, Gartzke, Erik, and Nordstrom, Timothy. (2004). "D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mote Peace?", *World Politics*, 57(1): 1–38
- Bohman, James, and Lutz–Bachmann, Matthias. (1997). *Perpetual Peace: Essays on Kant's Cosmopolitan Ideal*, Cambridge, MA: MIT Press,
- Brecher, Michael, and Wilkenfeld, Jonathan. (2000). *A Study of Crisi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Various years). *The World Factbook*, Washington, DC: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Cha, Victor D. (1996). "Bridging the Gap: The Strategic Context of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Korean Studies*, 20: 123–160.

- _____.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2): 261–291.
- Charles S. Gochman. (1991). “Interstate Metrics: Conceptualizing, Operationalizing, and Measuring the Geographic Proximity of States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International Interactions*, 17(1): 93–112.
- Chiozza, Giacomo. (2002). “Is There a Clash of Civilizations? Evidence from Patterns of International Conflict Involvement, 1946–97”, *Journal of Peace Research*, 39(6): 711–734.
- Colaresi, Michael P., Rasler, Karen, and Thompson, William R. (2007). *Strategic Rivalries in World Politics: Position, Space and Conflict Esca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relates of War Project. (2017). “State System Membership List, v2016”, Online: <https://correlatesofwar.org/> (검색일: 2023.12.01).
- Cranmer, Skyler J., Desmarais, Bruce A., and Kirkland, Justin H. (2012). “Toward a Network Theory of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38(3): 295–324.
- Crescenzi, Mark J. C., and Enterline, Andrew J. (2001). “Time Remembered: A Dynamic Model of Interstate Interac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3): 409–431.
- Crescenzi, Mark J. C., Enterline, Andrew J., and Long, S. (2008). “Bringing Cooperation Back In: A Dynamic Model of Interstate Interac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3): 264–280.
- Crescenzi, Mark J. C., Kathman, Jacob D., Kleinberg, Katja B., and Wood, Reed M. (2012). “Reliability, Reputation,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6(2): 259–274.
- Diehl, Paul F., and Goertz, Gary. (2000).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iehl, Paul F., Reifschneider, Jennifer, and Hensel, Paul R. (1996). “United Nations Intervention and Recurring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4): 683–700.
- Donno, Daniela, Metzger, Shawna K., and Russett, Bruce. (2014). “Screening Out Risk: IGOs, Member State Selection, and Interstate Conflict, 1951–2000”,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9(2): 251–263.
- Dorussen, Han, and Ward, Hugh. (2008).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Kantian Peace: A Network Perspectiv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2(2):

189–212.

- Fox, Jonathan. (2001). “Two Civilizations and Ethnic Conflict: Islam and the West”, *Journal of Peace Research*, 38(4): 459–472
- _____. (2002). “Ethnic Minorities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s: A Quantitative Analysis of Huntington's The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3): 317–338
- Gaddis, John L. (1986).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10(4): 99–142.
- Gaubatz, Kurt Taylor. (1996). “Democratic States and Commit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1): 109–139.
- Ghosn, Faten, Palmer, Glenn, and Bremer, Stuart. (2004). “The MID3 Data Set, 1993–2001: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1(2): 133–154.
- Gibler, Douglas M. (2009). *International Military Alliances from 1648 to 2008*,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Gleditsch, K. S., and Ward, M. D. (2001). “Measuring Space: A Minimum Distance Database”, *Journal of Peace Research*, 38(6): 739–758.
- Goertz, Gary, Diehl, Paul F., and Balas, Alexandru. (2016). *The Puzzle of Peace: The Evolution of Peac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e, W. H. (2011). *Econometric Analysis* (7th edition), New York, NY: Pearson.
- Gujarati, D. N. and Poter, D. C. (2009). *Basic Econometrics* (5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 Haas, E. B. (1958).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fner–Burton, Emilie Marie, and Montgomery, Alexander H. (2006). “Power Posi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cial Network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1): 3–27.
- Hansen, Holley E., Mitchell, Sara McLaughlin, and Nemeth, Stephen C. (2008). “IO Mediation of Interstate Conflicts: Moving beyond The Global versus Regional Dichotom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2(2): 295–325.
- Haveman, Jon. (2017). “Linguistic Links”, Online: <https://www.colorado.edu/cwa/jon-haveman> (검색일: 2023. 12. 01).
- Head, Keith, Mayer, Thierry, and Ries, John. (2010). “The Erosion of Colonial Trade Linkages after Indepen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1(1): 1–14.

- Heckman, James J. (1978). "Dummy Endogenous Variables in a Simultaneous Equation System", *Econometrica*, 46: 931-959.
- Hegre, Håvard, Oneal, John R., and Russett, Bruce. (2010). "Trade Does Promote Pe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47(6): 763-774.
- Henderson, Errol A. (1997). "Culture or Contiguity?: Ethnic Conflict, the Similarity of States, and the Onset of Interstate War, 1820-1989",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5): 649-668.
- _____. (1998). "The Democratic Peace through the Lens of Culture, 1820-1989",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3): 461-484.
- Henderson, Errol A., and Tucker, Richard. (2001). "Clear and Present Strangers: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2): 317-338.
- Hewitt, J. Joseph. (2005). "A Crisis-Density Formulation for Identifying Rivalr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42(2): 183-200.
- Hobbes, Thomas. (1994). *Leviathan: With Selected Variants from the Latin Edition of 1668*, Indianapolis: Hackett Pub. Co.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NY: Simon & Schuster, 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서울: 박영사.
- Jones, Daniel M., Bremer, Stuart A., and Singer, J. David . (1996).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15(2): 163-213.
- Kant, Immanuel. (1991[1795]).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Essay", Reiss, Hans (ed), 「Kant's Political Writing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International Institutions: Two Approach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4): 379-396.
- _____. (1993).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alist Challenge after the Cold War", Baldwin, David A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269-300,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and Martin, Lisa L. (1995). "The Promise of Institutionalist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0(1): 39-51.

- Keshk, Omar M. G., Reuveny, Rafael, and Pollins, Brian M. (2010). "Trade and Conflict: Proximity, Country Size, and Measur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7(1): 3–27.
- Keshk, Omar M. G., Pollins, Brian, and Reuveny, Rafael. (2004). "Trade Still Follows the Flag: The Primacy of Politics in a Simultaneous Model of Interdependence and Armed Conflict", *Journal of Politics*, 66 (4): 1155–1179.
- Kim, Hyung Min, and Rousseau, David L. (2005). "The Classical Liberals were Half Right (or Half Wrong): New Tests of the Liberal Peace, 1960–88", *Journal of Peace Research*, 42(5): 523–543.
- _____. (2013).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Conflict and Political Development", *Defence and Peace Economics*, 24(1): 47–72.
- Klein, James P., Goertz, Gary, and Diehl, Paul F. (2006). "The New Rivalry Dataset: Procedures and Patterns", *Journal of Peace Research*, 43(3): 331–348.
- Lai, B., and Reiter, D. (2000). "Democracy, Political Similarity, and International Alliances, 1816–199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2): 203–227.
- Levi, Jack S. (1981). "Alliance Formation and War Behavior: An Analysis of Great Powers, 1495–1975",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5(4): 581–613.
- Maddala, G. 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oz, Zeev, and Henderson, Errol A. (2013). "The World Religion Dataset, 1945–2010: Logic, Estimates, and Trend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9(3): 265–291.
- Maoz, Zeev, Johnson, Paul L., Kaplan, Jasper, Ogunkoya, Fiona, and Shreve, Aaron. (2018). "The Dyadic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MIDs) Dataset Version 3.0: Logic, Characteristics, and Comparisons to Alternative Datase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3(3): 811–835.
- Martin, Lisa L., and Simmons, Beth A. (1998).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729–757.
- Melitz, Jacques, and Toubal, Farid. (2014). "Native Language, Spoken Language, Translation an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3(2): 351–363.
- Olson, Mancur Jr., and Zeckhauser, Richard. (1966).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8(3): 266–279.
- ONeal, John R. (2003). "Measuring Interdependence and Its Pacific Benefits: A Response to Gartzke and Li", *Journal of Peace Research*, 40(6): 721–725.
- ONeal, John R., and Russett, Bruce. (1997).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2): 267–294.

- Oneal, John R., Russett, Bruce, and Berbaum, Michael L. (2003). “Causes of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88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3): 371–394.
- Palmer, Glenn, D’Orazio, Vito, Kenwick, Michael, and Lane, Matthew. (2015). “The MID4 Data Set, 2002–2010”,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2(2): 222–242.
- Palmer, Glenn, McManus, Roseanne W., D’Orazio, Vito, Kenwick, Michael R., Karstens, Mikaela, Bloch, Chase, Dietrich, Nick, Kahn, Kayla, Ritter, Kellan, and Soules, Michael J. (2020). “The MID5 Dataset, 2011–2014: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9(4): 470–482
- Pevehouse, Jon, and Russett, Bruce. (2006). “Democratic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mote Pea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4): 969–1000.
- Reiter, Dan. (1994). “Learning, Realism, and Alliances: The Weight of the Shadow of the Past”, *World Politics*, 46(4): 490–526.
- _____. (1996). *Crucible of Beliefs: Learning, Alliances, and World War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Russett, Bruce, and Oneal, John R. (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 Russett, Bruce, Oneal, John R., and Cox, Michaelene. (2000). “Clash of Civilizations, or Realism and Liberalism Déjà Vu? Some Evid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37(5): 583–608
- Sarkees, Meredith Reid, and Wayman, Frank. (2010). “Resort to War: 1816–2007. Washington, DC: CQ Press. COW Wars v. 4.0, 1816–2007”, Online: <http://www.correlatesofwar.org/> (검색일: 2023. 12. 01).
- Schweller, Randall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72–107.
- Senghaas, Dieter. (2007). *On Perpetual Peace: a Timely Assessment*, New York: Oxford: Berghahn Books.
- Shannon, Megan, Morey, Daniel, and Boehmke, Frederick J. (2010).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Militarized Dispute Initiation and Dur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4): 1123–1141.
- Shannon, Megan. (2009). “Preventing War and Providing the Pea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Disput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6(2): 144–163.

- Simmons, Beth A., and Martin, Lisa L. (200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Carlsnaes, Walter, Risse, Thomas and Simmons, Beth A. (ed),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2-211,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inger, J. David, and Small, Melvin. (1966). "Formal Alliances, 1815-1939: A Quantitative Descrip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3(1):1-32.
- Singer, J. David, Bremer, S. A., and Stuckey, J. (1972).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Russett, Bruce (ed), 『Peace, War, and Numbers』, 19-48,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nyder, Glenn H. (1990).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4(1): 103-123.
- Snyder, Glenn H. (1991). "Alliances,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1): 121-142.
- _____. (1997). *Alliance Politics*,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tinnett, Douglas M., Tir, Jaroslav, Schafer, Philip, Diehl, Paul F., and Gochman, Charles. (2002).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Direct Contiguity Data, Version 3",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19(2): 58-66.
- Terminski, Bogumil. (2010).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Perpetual Peace in the History of Political-Legal Thought", *Perspectivas internacionales*, 6(1): 277-290.
- Walt, Stephen M. (1990).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부록 1> 외교협력이 군사충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III (sensitivity analysis);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군사분쟁 종속변수		무력사용 군사분쟁 종속변수		군사위기 종속변수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모델 1	2.1935***	0.0204	1.9682***	0.0458	0.3332	0.3328
모델 2	2.2063***	0.0207	1.9756***	0.0465	0.2662	0.3234
모델 3	2.2019***	0.0205	1.9739***	0.0460	0.2675	0.3306
모델 4	2.1852***	0.0214	1.9443***	0.0486	0.3237	0.3033
모델 5	2.1913***	0.0232	1.9674***	0.0487	0.7370**	0.3124
모델 6	2.2073***	0.0228	1.9947***	0.0475	0.8718**	0.3303
모델 7	2.1594***	0.0251	1.9082***	0.0534	1.0290***	0.2334
모델 8	1.7827***	0.0702	1.2039***	0.1614	1.7500***	0.0689
모델 9	1.7446***	0.0762	1.1402***	0.1680	1.7413***	0.0714
모델 10	1.7642***	0.0732	1.1629***	0.1657	1.7479***	0.0694
모델 11	1.6952***	0.0802	1.1088***	0.1659	1.7031***	0.0738
모델 12	-0.5777 ⁺	0.3683	0.6570**	0.2519	1.7395***	0.0907
모델 13	-1.0223***	0.2187	0.5926*	0.2740	1.8223***	0.0792
모델 14	0.9469 ⁺	0.5791	0.6178**	0.2454	1.7222***	0.0847
모델 15	1.6557***	0.0842	1.2610***	0.1535	0.9872***	0.2038
모델 16	1.6053***	0.0909	1.2025***	0.1602	0.8754***	0.2167
모델 17	1.6349***	0.0871	1.2259***	0.1574	0.9525***	0.2067
모델 18	1.5934***	0.0889	1.2036***	0.1535	0.9442***	0.1972
모델 19	1.7131***	0.0825	1.3578***	0.1469	1.2550***	0.1732
모델 20	1.7700***	0.0781	1.4387***	0.1422	1.4201***	0.1537
모델 21	1.6540***	0.0866	1.2628***	0.1543	1.3023***	0.1526
모델 22	1.7373***	0.0703	1.5606***	0.1050	1.1999***	0.1963
모델 23	1.7344***	0.0712	1.5561***	0.1064	1.1874***	0.2003
모델 24	1.7407***	0.0706	1.5646***	0.1054	1.2117***	0.1966
모델 25	1.7098***	0.0722	1.5307***	0.1071	1.1695***	0.1943
모델 26	1.6921***	0.0734	1.4960***	0.1093	1.0673***	0.1979
모델 27	1.7386***	0.0710	1.5563***	0.1060	1.2488***	0.1826
모델 28	1.6745***	0.0730	1.4575***	0.1103	1.2605***	0.1564
모델 29	1.8485***	0.0588	1.7131***	0.0844	0.9279***	0.2316
모델 30	1.8496***	0.0593	1.7146***	0.0850	0.9081***	0.2363
모델 31	1.8547***	0.0586	1.7222***	0.0839	0.9366***	0.2333
모델 32	1.8239***	0.0606	1.6873***	0.0865	0.9173***	0.2251
모델 33	1.8089***	0.0619	1.6534***	0.0894	0.8321***	0.2209
모델 34	1.8435***	0.0604	1.7018***	0.0868	0.9872***	0.2172
모델 35	1.7733***	0.0638	1.5977***	0.0934	1.0696***	0.1804
모델 36	1.6118***	0.1162	1.1773***	0.2119	1.2156***	0.2071
모델 37	1.5982***	0.1232	1.0837***	0.2360	1.1520***	0.2247
모델 38	1.6249***	0.1171	1.1399***	0.2242	1.2118***	0.2126
모델 39	1.5545***	0.1248	1.0783***	0.2228	1.1566***	0.2115
모델 40	1.4523***	0.1413	0.9815***	0.2274	0.9461***	0.2315
모델 41	1.5345***	0.1323	1.0185***	0.2364	1.1719***	0.2104
모델 42	1.3557***	0.1475	0.8025***	0.2401	1.0819***	0.1953

주: a two-tailed test, +p<=.10, *p<=.05, **p<=.01, ***p<=.001.

【Abstract】

Diplomatic Cooperation and Militarized Conflicts: Focusing on Reciprocal Causation

Kim, Hyung Min · Yu, Jinseog

This study examines two important top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namely, whether diplomatic cooperation among states affects the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s and whether militarized conflicts affect the future diplomatic cooperation among states. It further explores causal directions between the two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diplomatic aspects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 conflict aspects and whether conflict behaviors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 diplomatic policies. The study examines whether a simultaneous causation exists between the two factors. It also points out that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military alliance policies, not other diplomatic relations, and that there is also a lack of studies examining the causal effect of militarized conflicts on diplomatic cooperation. Our research aims to fill the gap in existing research by focusing on two advances in studies of diplomatic-military cooperation. First,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utilizes the estimation methods of examining the simultaneous causations (two-way causation) between diplomatic cooperations and conflicts. Second, using a diverse set of data and variable measurements, we examine the empirical models of militarized conflicts and diplomatic cooperation. Our research finds that diplomatic cooperation among states positively affects the onset of militarized conflicts while the onset of conflicts negatively affects diplomatic cooperation among stat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robust by using different data, variable measurements, and estimation methods.

Keywords: Diplomatic Cooperation, Militarized Conflicts, Reciprocal Causation,
Military Alliance, Diplomatic Exchange